

광주·전남 축산農 몰락 위기

양돈 농가 10곳 중 4곳 '사육 포기'

한우 농가수 5년새 두배로 늘었지만

사료값 폭등·소값 폭락 농가 '二重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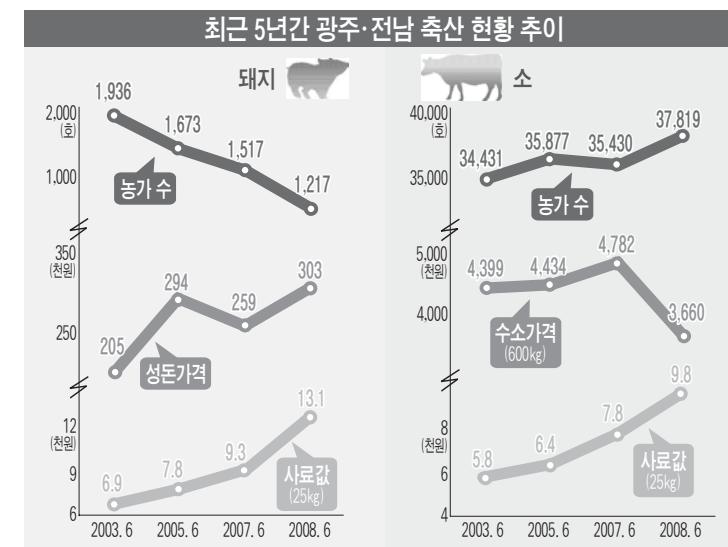
사료값 폭등 및 한미 FTA 등의 여파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양돈 농가 10곳 가운데 4곳은 돼지 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인해 향후 한우사육 규모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지역 축산업이 몰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돼지 사육 미리 수가 80만4천453두로, 5년새 4.0%(3만3천779두) 줄었다. 또 이같은 양돈 규모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선 11.5%(10만4천557두)나 감소한 것으로 지역 양돈농가의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03년(1천936호)에 비해 37.1%(719호) 감소한 것으로, 사료값 인상 등으로 돼지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실제 광주·전남은 최근 5년간 돼지 사육값이 2배 가량 치솟으면서



대 등에 따른 소 사육 증가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지역내 한우 농가의 향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료값이 매년 전 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 최근 미국산 수입 재개 이후 소값이 연일 '곤두박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값의 경우 6월 현재 9천840 원으로 5년새 68.5%(4천원)나 올라 한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내 축산농가가 사료원료인 육수수와 대두 등의 국제 곡물

증하면서 소값 안정과 한우 소비 확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었다.

반면 소값은 올 들어 급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소값(600kg)가격은 366만원으로 5년새 16.7%(73만3천원)나 떨어졌다.

또 이같은 하락폭은 소값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6월(478만2천원)에 비해 23.5%(112만2천원)나 낮 것 이어서 사료값 등과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미분양 주택 펀드 통해 매입

일반인·기관 투자가 참여...건설사 자금난 해소 기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인과 기관 투자가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필요하면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자금경색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를 주거나 나중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섬김 세정' 빛났다

상반기 납기연장 2,549건·징수유예 3,685건

경영난 겪은 영세 납세자 지원 효과 '톡톡'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이 올해 상반기 중 '섬김 세정'을 펼친 결과 경영애로기업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연장은 2천54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385건(118%) 늘었고, 징수유예는 3천685건으로 2천557건(22.7%) 증가했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지난 4월 전북 김제시 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120건 7천8천500만원의 세정지원을 했다.

또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역전략업체를 지난해보다 794개 늘려 8천403개로 지정, 지난 7월부터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경영상 위기에서 처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 징집호우 등 집단피해 지역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현장을 찾아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경영상 위기에서 처한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 징집호우 등 집단피해 지역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현장을 찾아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추석 앞둔 광주·전남지역

美 쇠고기 200t 풀렸다

유통업 3개사 등 5개업체서 시판 중

지난달 검역을 통과한 1만여t의 미국산 수입쇠고기 가운데 20여t이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A유통업체 등 3개사와 광주지역 재래시장 2개소 등 5개 업체가 추석특수를 노리고 서울 지역 수입업체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20여t을 사들여 판매 중이다.

이들 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찾는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일부를 판매했고,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값은 올 들어 급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소값(600kg)가격은 366만원으로 5년새 16.7%(73만3천원)나 떨어졌다.

또 이같은 하락폭은 소값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6월(478만2천원)에 비해 23.5%(112만2천원)나 낮 것 이어서 사료값 등과 소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검역제가 이후 이달 7일 현재까지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1만687t(688건)에 대해 검역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만185t(658건)이 검역합격증을 받았다..

검역을 통과한 물량 가운데 3분의 1인 3천698t은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창고로부터 수입업체 손에 넘겨졌다.

본격 유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하는 이 출고물량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천700t에 불과했으나 추석대목을 앞두고 빠르게 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추석경기 악화

상여금도 줄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의 올해 추석경기가 지난해 추석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16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석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여금 지급업체 수자나 수준 등이 감소하고, 자금 부족률도 심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추석 경기가 크게 악화됐다.

주석 상여금을 지급했거나 계획인 업체는 65.1%로 전년(71.6%)보다 6.5% 포인트 감소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 또한 전년보다 4.4% 포인트 하락한 기본급의 61.9%로 나타났다. 일체당 추석자금부족률도 전년(24.8%)보다 11.7% 포인트가 상승한 36.5%로 조사됐다.

이밖에 추석 휴무일수에 대해서는 전체의 65.1%가 '3일'로 답했고 4일(27.7%), 5일(3.0%), 2일(1.8%), 미정(2.4%) 등의 순이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프리미엄 준중형 '포르테'의 홍보대사로 선정된 텔런트 한지민(왼쪽)씨가 8일 서울 압구정동 사옥에서 기아차 김충호 국내영업본부장과 함께 포르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추석 배송업체 "알바' 없나요"

광주·전남 230여곳 채용 공고

추석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과 영업직원 등을 찾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사랑방닷컴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230여곳의 유통·배송업체 등이 추석 연휴를 겨냥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사도 영업관리와 채권추심을 담당할 사원을 오는 12일까지 선발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추석 대비 채용 공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다양한 업체에서 추석 대비 채용 공고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생과 영업직원을 찾는 공고가 많아 추석 연휴를 겨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기아차, 포르테, 한지민씨 등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